



주 제:	“알렐루야!”	“예수 부활 대 축일” (다해)	2007년 4월 8일
복음 묵상:	요한 20,1-9(루카 24, 1-12)	사도 10,34 ~ 37 ~ 43	콜로 3,1-4 (or 1 코린 5,6-8)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기쁘가요?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하였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토록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거 동락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우리들 또한 제자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만 세상의 풍파로 인해, 세상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당을 벗어나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잊고 살아가지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깨닫지는 못한다 해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와 같이 주님의 찾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까요? 우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성껏 미사에 참여해야 해요. 떠돌고 장난을 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제라도 기도와 미사에 정성껏 참여해 보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군종이성호 신부)

✦ 복음 [루카 24,1-12]



안식일 다음 날 아직 동이 채 트기도 전에 그 여자들은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이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이미 굴러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머리동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때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 여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전에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무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들의 손에 넘어 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해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려 열 한 제자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안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러니 하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무덤에 달려 가서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랬더니 수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 갔다.

- **본당에서 새로운 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새로 단장한 웹에 성령 기도회 란에는 신자로 등록된 자는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어 좋은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 이곳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나면 내용도 보고,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새 단장 중입니다. 함께 좋은 웹을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1 코린 5,7)
 “Clean out the old yeast, so that you may become a fresh batch of dough”